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랑(愛)쉼터' 대상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치매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2024년 사랑(愛)쉼터' 대상자를 모집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쉼터 프로그램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와 만경보건지소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 중 장기 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제시민은 누구나 쉼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쉼터에는 간호사·작업치료사·노인치매예방관리사 등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지원, 인지 재활, 정서 지원 등 전문화된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원예·요리·체조 등 다양한 기타 인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초등생 대상 '스키캠프교실'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4 스키캠프 교실'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시는 '2024 김제시 생활체육 스키캠프 교실'을 최근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김제시 체육회가 주관, 지역 거주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스키캠프는 올바른 장비 착용 방법 등 안전교육과 스키의 기본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생활체육 스키캠프는 평야지대인 김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동계 레저스포츠를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운영하며 학업으로부터 얻은 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 및 면학분위 조성, 공동체생활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길러줄 좋은 기회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신청자의 폭주로, 신규 참가자들을 우선 순위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 조기 마감 되는 등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문화역사전망대 활성화 논의

유희태 군수 "삼례읍 관광 허브로 육성"

완주군이 완주문화역사전망대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전망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친 완주문화역사전망대는 대한민국 대학본부 건물로는 최고층을 자랑하는 삼례읍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옥상에는 전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친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만경강 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정부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완주문화역사전망대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망대에서 각종 회의와 간담회를 추진해 외부 인사들에게 전망대를 알



완주군이 완주문화역사전망대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전망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리고, 미술관과 도서관 운영, 스탬프투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우석대와 협업해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 대외적으로 전망대를 알리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문화역사전망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킨 최초의 사례다"며 "상생협력사업의 선도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시책 중 실행 가능한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회의 이후에는 전망대와 함께 삼례역 광장, 쉬어가삼례, 삼례문화예술촌 석상 등 삼례읍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한편, 완주군은 완주문화역사전망대, 삼례문화예술촌, 비비정 등 삼례읍 관광자원을 극대화해 삼례읍을 완주 관광 중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 군수는 "우석대 후문 주차장 조성, 삼례역 KTX 정차 등 관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삼례읍이 3,000만 방문객 유치로 선도할 관광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시정 효율성 제고

지난해 이자수입 70억 확보, 도내 유일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김제시는 올 한 해 스마트한 자금관리 건전 재정 운영, 공정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친화형 공공청사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회계업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4년 주요과제로 추진할 '소통과 공감의 청사 내외부 홍보매체 강화 사업'을 통해 청사 본관과 의회 개노피

에 최첨단 홍보매체를 설치, 플래카드 수시 탈부착에 따른 비용 및 홍보 누락 방지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시·의정 홍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또,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진봉면, 금산면)를 오는 2025년까지 신축해 근무여건 개선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리분야는 '자금 통합관리 및 보조금 집행잔액 조기 반납'으로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실제 시는 작년 한 해 세출규모 증

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예금의 전략적 예치 등을 통해 70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다.

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관내 생산품 우선구매 등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및 조달수의 증대의 결과로 도내 유일 조달 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도 관내 지속적인 조달사업의 확장이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소장,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박금남 소장이 이 기간동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 14개소를 비롯해 등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기간동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 14개소를 비롯해 등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특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며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귀농 귀촌 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사회의 역량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본 사업이 농어촌 소멸을 극복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농로포장 등의 빠른 착수와 이월 사업 방지를 위해 신속집행 합동설계단을 본격 운영한다.

김제시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2월 28일까지 시설직 22명 참여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농로포장 등의 빠른 착수와 이월 사업 방지를 위해 신속집행 합동설계단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 19일부터 운영된 합동설계단은 오는 2월 28일까지 시설직 22명이 참여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사업계획 검토 및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이다. 또 현장조사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사업은 지역활성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공사, 배수개선사업 등 모두 266건 102억원으로, 이를 자체 설계로 진행해 실시설계비 약 4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합동설계단 조기 운영에 따라 농번기 이전 사업발주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물론,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까지 해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 직원들을 합동설계단에 참여시켜 업무연찬을 통한 기술적의 업무 능력 향상도 도모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합동설계단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고, 신규 공직자들에게는 기술 연찬의 장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농번기 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보건사업분야 '9관왕'... 행정력 입증

감염병 관리 국무총리상,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장관상 등

완주군이 보건사업 각종 평가에서 9관왕을 차지,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했다.

22일 완주군은 지난해 기관 평가에서 총 9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감염병 관리(국무총리상) △구강보건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 △영양플러스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전라북도지사상) △모자보건사업(전라북도지사) 부문 등 보건 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동안 완주군은 주민들에게 지속적

인 홍보를 기울여 보건사업의 실천율을 높였다.

또한, 각 분야별 예방 관리 교육, 건강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 점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건강과 직결된 감염병 관리 분야 및 각 보건분야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건강문제 반영 및 적극적인 보건사업 추진으로 예방관리 활성화에 힘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